



# 선군시대 여성혁명가로 키워주는 은혜로운 품

7월 30일, 위대한 수평님의 품속에서 우리 여성들의 운명전환의 날로 새겨진 이날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꾸어 가시는 숭고한 사랑의 화환속에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나라 여성들을 따듯히 보살펴주시며 그들을 시대의 영웅으로,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 주시는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땅에 파편된 모든 혁명의 전위들들과 만민대제의 기념비적장조물들에는 우리 여성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 값높은 평가—불굴의 여성혁명가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여성 조속추진투기비행사들인 조갑남, 필설동우들의 비행훈련을 보아주시는 때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속추진투기비행사라는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릴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여성전투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인계하신 담력과 배양을 받고 장광으로 날아올라 자기의 영광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성전투비행사들의 단호비행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나이런 처녀들이 정말 용감하고, 하늘의 꽃이냐고, 전군사관들 치음으로 여성조속추진투기비행사들이 되어야 한다고 못내 탄복하시였다. 여성전투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오목도로 지켜보시면서 지랄대 용감 무쌍한 훈련모습을 보니 대단히 기쁘고, 남성들도 자기 힘으로 조속추진투기비행사들이 단호도 된다 는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성과라 하고 저를 치하해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그토록 자랑스러워 나라의 경사를 안아오시기 위해 기울인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실철의 세제가 되새겨져 눈물을 뜨겁게 적시였다.

끊임없는 선군정치의 길에서 여성군인들의 가슴마다에 무비의 용명을 안겨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 니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도 찍으시였으며 여성들속에서 발휘되는 아름다운 소행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세상에 나라마다 여성들이 있지 만 우리 여성들처럼 영도자의 따뜻한 사랑에서 자주적준엄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받은 여성들은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셔 조 선녀성의 존엄과 영예는 값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빛나고 있다.

## 만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으라

김정숙형양계사공장은 누구나 알 다싶이 원수님께서 대다수를 이루고있 는 공장이었다. 이 공장의 여성들이 은종일 뜨거 운 불에 손을 잡고 고된 노동으로 비단실을 생산하던 모습은 위대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치녀조사 공예제로 다가가시였다. **«치녀조사공예제»** 지난 70일전투 기간 삼남연도인민경제계획을 세밀한 지 수행하고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니었다는 자랑찬 고교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치녀조사 공예제로 다가가시였다. **«70일전투기간 삼남연도인민경제계획을 세밀한 지 수행하고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니었다는 자랑찬 고교를 받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 공장은 천리마를 타고 달리는 여성들의 용거를 일러고, 행복의 보금자리로 자기의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다.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에 떠날때의 만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으라 본보기공장으로 그 이름 떨치셨다.»** 지난 6월 어느날 이 공장을 찾았 을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성들의 힘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 들기 위한 투쟁속에서 공장을 번 대적으로 전진시키셨을뿐 아니라 70일전투기간 삼남연도인민경제계획을 전진적으로 세밀한 지 수행하고 전향단위의 영예를 지니었으며 총정 의 200일전투에서 다 남에남다라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데 대 해 기쁨을 감지 못하시였다.

을 보시고 동지들과 같은 강인하고 위대한 여성혁명가들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조국의 커다란 자랑 이라고 격정적 감격 하신 그의 뜻깊은 언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 사망의 우리 집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은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9월 4일 다너간 날 심혈기. 이것은 창건거리에서 사는 김정숙형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 영웅 공장노동자의 집 출입문구에 있는 글말이다. **«이제는 원수님도 와보지 못한 그의 집을 찾으니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신혼생활이 재미있고, 앞으로 자식은 낳거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오시는 그의 인품과 덕담 에 매혹되어 아들도 낳고 방직공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딸도 낳았다»**는 우리 여성들의 불굴의 기개를 보시는 뜻이 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는 김정숙형양계사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평님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의주신 천리마 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린 전진대열처럼 우리 당이 대의주 천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고**

당하시는 크나큰 피로율은 모두 뒤 전에 투시고 여성들의 열혈을 비번 보기도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이라고 격정적 감격 하신 그의 뜻깊은 언설... **«이제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 사망의 우리 집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은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9월 4일 다너간 날 심혈기. 이것은 창건거리에서 사는 김정숙형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 영웅 공장노동자의 집 출입문구에 있는 글말이다. **«이제는 원수님도 와보지 못한 그의 집을 찾으니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신혼생활이 재미있고, 앞으로 자식은 낳거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오시는 그의 인품과 덕담 에 매혹되어 아들도 낳고 방직공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딸도 낳았다»**는 우리 여성들의 불굴의 기개를 보시는 뜻이 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는 김정숙형양계사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평님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의주신 천리마 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린 전진대열처럼 우리 당이 대의주 천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고**

당하시는 크나큰 피로율은 모두 뒤 전에 투시고 여성들의 열혈을 비번 보기도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이라고 격정적 감격 하신 그의 뜻깊은 언설... **«이제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 사망의 우리 집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은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9월 4일 다너간 날 심혈기. 이것은 창건거리에서 사는 김정숙형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 영웅 공장노동자의 집 출입문구에 있는 글말이다. **«이제는 원수님도 와보지 못한 그의 집을 찾으니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신혼생활이 재미있고, 앞으로 자식은 낳거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오시는 그의 인품과 덕담 에 매혹되어 아들도 낳고 방직공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딸도 낳았다»**는 우리 여성들의 불굴의 기개를 보시는 뜻이 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는 김정숙형양계사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평님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의주신 천리마 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린 전진대열처럼 우리 당이 대의주 천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고**

새로 건설한 김정숙형양방직공장 로 동자합숙에서 5.1절경축 로동자전 자그마한 그늘을 가져주시려고, 우리 여성들을 세상에서 제일 환하게, 보 인듯이 내세워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으신 천선시찰, 현지지도 의 그 곁을. **«이제는 원수님의 따뜻한 사랑 어린 화려한 화환을 받아안았을 때, 여성들을 위한 훌륭한 의료봉사 기지에 깃든 은정어린 이야기를 전 해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모르 고 받아온 사랑이 너무도 고마워 목매며 격정을 더친 우리 여성들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자랑분이 되어 한평기한 평 기가 되어온 한평기한 우리 여성들의 열혈 그리도 아름답게 빛나고 원수님께서 인계하신 만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고 내달리는 그들에게 시대의 선구자들로 나 아가는 모습 또한 장하고 돈보이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은 원수님께서 주제 101(2012)년 9월 4일 다너간 날 심혈기. 이것은 창건거리에서 사는 김정숙형양방직공장 로동자인 로력 영웅 공장노동자의 집 출입문구에 있는 글말이다. **«이제는 원수님도 와보지 못한 그의 집을 찾으니 신혼부부의 행복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신혼생활이 재미있고, 앞으로 자식은 낳거나 낳으려고 하는가고 다정히 물어오시는 그의 인품과 덕담 에 매혹되어 아들도 낳고 방직공업을 하기로 마음먹은 딸도 낳았다»**는 우리 여성들의 불굴의 기개를 보시는 뜻이 이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이제는 김정숙형양계사공장의 일 군들과 로동자들이 위대한 수평님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의주신 천리마 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린 전진대열처럼 우리 당이 대의주 천리마의 고삐를 역세계 틀어잡고**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제해설 |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역량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명제는 혁 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힌 고귀한 지침이다. 여성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 다. 그러므로 사회가 발전하고 혁 명이 힘차게 전진하려면 여성들이 지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한쪽바퀴만으로는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것처럼 남자들의 역 할만으로는 혁명과 건설이 본격적 으로 진행될 수 없다. 여성들이 혁명 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밀고나가는 믿음직한 역군이 될 때 혁명이 승승 장구하게 된다.»** 오랜 기간 우리 여성들은 봉건의 잔혹에서 온갖 착취와 억압, 멸시와 구족을 받으며 눈물겨운 생활을 하여왔다. 나라라면 수난의 시기에 는 삶의 권리마저 빼앗기고 가장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죽지 못 해 살아온것이 바로 조선여성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위대한 수평님께서 나라를 찾아주시는 때부터 인간이하의 처지에서 수탈당하 시들던 피눈물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지수하였다. **«인간사랑을 원풍으로 지니신 위대한 수평님과 장군님께서서는 여성들이 지니고있는 힘과 슬기를 격 중히 여기시고 여성들을 열렬한 혁 명가, 애국자로 존중해주시고 기우시였다. 오랜 기간 내려오던 남녀불평등의 사회력사적관행을 종국적으로 청산하시고 여성들의 역할을 끊임 없이 높이도록 하늘같은 사랑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수평님들의 따뜻한 보살피심속에서 우리 여성들의 존엄은 최상의 경지 에 올려지게 되었다.»** **«올림픽의 문화를 바라보며 인생 을 환관하던 연약한 조선여성들이 시대의 불, 광명한 혁명역량으로 자 라난 국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평,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품속에서 만 필적정수 있었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고귀한 정치적성 명을 안겨주고 자주적인 참된 삶을 꽃피워주시는 위대한 수평님들의 영도마라 력사의 생년기를 헤쳐는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 밀어왔다. 영광의 나날에나 시련의 나날에나 주인의 중요없이 당담을 굳게 믿고 따르며 언제나 조국에 힘 을 대태우고 혁명의 한걸음 뜻깊은 걸음은 우리 여성들은 주제조선의 크나큰 공지에요 자랑이다.»** **«새로운 주제 100일전에 우리 여성들의 존엄과 영예는 최대로 높 이 펼쳐지고있다.»** **«위대한 수평님들의 뜻을 정의 받 들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우리 여성들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난 녀성들로 내세우시기 위해 크나큰 실철을 기울이고계신다. 녀 성들을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해가 는 위대한 시대의 주인공으로 내세 워주시고 조국건설에 길이 빛날 위 용을 창조해나가도록 이끄시는 원수님의 영도의 자애자애는 조국 땅 그 어디에나 뜨겁게 새겨져있다. 여성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혁명의 불모지인 사회주의조국을 무적불승의 배두산봉으로 굳건히 지켜주시는 선군혁명영도자 그 바 르신 길에서도 녀성군인들을 한평 한평 사랑의 한결이 안아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군인가족들 이 흘리는 순결한 방심의 평야를 더 혁명의 피방울인양 혁명의 맥들을 더 태운다라 하시며 그들을 우리 당의 딸, 우리 당의 머느리들로 높이 기**

내세워주시 분이 우리의 원수님 이이다. **«어머님도 몸소 제정하도록 해 주시고 창건거리살림집에 인사한 평민한 녀성조물들의 가치도 찾았으며 연어비사랑을 배워 주시였으며 김정숙형양방직공 장로동자합숙, 경안신문 유선중앙인 구소 등 녀성들을 위한 창조물 들을 훌륭히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우리 녀성들을 견결한 녀성혁명가, 열렬 한 애국자로 키우는 생명수로 되 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녀성들의 모습은 참 으로 비범하고 훌륭하다. 수많은 녀 성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영 용으로, 일군으로, 선군시대공로자 로, 로력혁신자로 값높은 삶을 빛내 고있다. 주제조선의 영웅적기상 과 끈임을 세계반면에 펼쳐가는 녀 성들속에는 우리 당이 조국과 인민 의 장한 딸, 불굴의 녀성혁명가로 내세워준 조속추진투기비행사들도 있고 원만과학기술사들과 끊임없 이 이룩하고있는 과학자들도 있 으며 국제경기들에서 함흥공화국기 를 향공놀이 휘날리는 체육인들도 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위대한 수평, 위대한 영도의 품속에서 가장 값높은 위대한 권리를 누리며 혁 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 고나가는것은 우리 녀성들의 크나 큰 영광이며 행복이다.»** **«모든 녀성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명제를 심장깊이 새기고 애국의 열정과 창조적능력을 최대로 발양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참전자, 위훈자를 쟁그리 기울인다.»** **«위대한 수평님께서 이리시**

## 위대한 태양을 받아들여올리신 조선의 어머니

열렬한 애국자이신 강반석 녀사의 서거일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강반석어머님을 조선 의 어머니라고 부른다. 조선의 어머니! 바로 이 부름에 천만년세월이 흐 르는데 지울수 없는 강반석어머님의 열렬한 애정이 깃들여있는것이다. 력사는 인류앞에 빛나는 공적색을 새 낸 인민들의 이름도 적지 않게 기록 하고있다. 그러나 강반석어머님처럼 잘지 않은 한평생 당대만이 아니라 민족의 후손대대로 더불어 길이 빛날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신분은 알지 못한다. 세상사람들모두가 태양으로 높이 솟아올라 있는 우리 수평님을 조선의 태양, 인류의 태양으로 받아들여올리신 강반석어머님. 새기를 이어 빛나는 어머니의 고귀한 한평생을 돌이켜보게 되는 오늘 어머니수평님의 추억깊은 교사가 천 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위대한 수평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의 온 생애는 그대로 나의 가슴에 참된 인생관, 혁명관 을 심어준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은 생애였다.»** **«여로부터 훌륭한 자식의 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다. 강반석어머님은 력사상 그 어느 어머니도 지닐수 없었던 비범한 천륜과 고귀한 덕성, 열렬한 애국심 을 지닌분이었다. 어려서부터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운명을 못내 걱정하시며 나라를 찾 는 성스러운 위업에 모든것을 다 바치신 강반석어머님. **«이제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수평님께 바라보시던 무엇이었는가.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가슴뜨거운 사연을 담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은아 높고 땅은아 넓다 너는 그대 이다음에 하늘땅보다 더 크거라** **«강반석어머님께서 이리시던 아이들님 제자 불러주시던 노래이다. **«사람들은 흔히 높은것을 하늘에 비 기고 낮은것을 땅에 비겨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넓은 품은 끝간데없 이 펼쳐진 저 하늘과 드넓은 이 땅을 합친것보다 더 크고 숨영없었었었었 은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민족의 장한 아들들로 자라 나갔는 싸움을 한몸 버치는것이였으리라. **«이제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는 피의 투쟁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었다. **«하지만 인민의 분노, 인민의 피라 는 함성이 그대로 어린 수평님의 가슴에 애국의 불씨로 심어지기를 바라시였기에 우리 수평님을 걸터너 투쟁대오에 내세우시었던것이다. **«세상에 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 는데 바친 어머니들의 미담이 수많 이 많다. 그러나 강반석어머님처럼 이리시던 아들들을 훌륭적공이 벗어날 투쟁 대오에 내세운 어머니가 동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었는가. **«이제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를 바라보며 혁명의 넓은 길로 억세게 떠밀어준 강반석어머님의 마지막 모습은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거룩한 스승의 모습이었으니 조국과 민족을 위한 중언하고도 시련에 한 걸음서 어 려운 투쟁에 우리 수평님을 걸터너 투쟁대오에 내세우시었던것이다. **«세상에 는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 는데 바친 어머니들의 미담이 수많 이 많다. 그러나 강반석어머님처럼 이리시던 아들들을 훌륭적공이 벗어날 투쟁 대오에 내세운 어머니가 동서고금 그 어디에 있었었는가. **«이제는 원수님의 그토록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조국의 조소 를 지켜 끝나는 치녀사진을 바쳐가 는 우리의 미더운 녀병사들, 군복입 은 남민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선군시대의 제2나팔수, 최고사령부 작전대원의 영예와 자망을 열쳐가는 인민가축들, 혁명의 꽃을 번합없이 피워가도록 영예군인의 영원한 절동 무가 되여온 훌륭한 녀민들과 함께 우리 여성들이 오늘날 여성조속추진 투기비행사와 같은 선군시대의 불굴 의 여성혁명가들로 더욱 역세계 정 장하고있을것이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마로끄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라 바트 마로끄왕국 국왕 모하메드 6세 폐하 나는 마로끄왕국 국왕에게 축하하여 축하와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105(2016)년 7월 30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위금대표단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위금대표단 10명이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진행되는 제31차 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3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국가체육지도 위원회 부위원장인 로두철 내각부총



본사기자 김준혁



# 우리 당이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훌륭한 선물

## 새로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개진된 중앙동물원을 돌아보고

### 태양의 빛밭아래 눈부시게 안겨오는 문명강국의 래일

지난 24일 새로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개진된 중앙동물원 중공식이 진행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곳을 찾는 인민들의 물결이 말그대로 대하를 이루었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인공물의 밑에 의하면 이날 손님들은 예이릴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있다. 대성산기술에 펼쳐진 문명의 별천지는 태연에 인민의 실금을 붙여잡았다. 한민 발을 붙여놓으면 떠나고싶지 않은 곳, 누구나 사회주의 우리 조국의 무진

막강한 힘과 우리 문명이 어떤 경지에 올라섰는가를 똑똑히 알게 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세계적수준의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을 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워내 인민들에게 유쾌하고 분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경치가아름다운 대성산기술에 온 세상이 보관듯이 환희롭게 찾아오른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

수만㎡에 달하는 연건축면적에 우주반이며 고성광판, 동물판, 식물판을 비롯하여 자연에 대한 흥미로운 리해와 폭넓은 지식을 주는 여러 전시관들과 선물관이며 전자열람실 등까지 갖춘

특색있는 교육거점, 문화휴식장소로 황홀하게 꾸려진 자연박물관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

백두산로망이를 형성한 당시 본관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100여정보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에 멀리서 보아도 어떤 동물사인지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특색있게 시공된 파충류관 원숭이관 등 여러 동물관들과 맹수사, 코끼리사, 기린사, 작은 말사를 비롯하여 수십개의 동물

사들이 주변경치와 어울리게 현대적으로 일떠선 천지개벽된 중앙동물원을 돌아보는 건파정에 사람을 누구나 가슴에 가득 차넘치는 희열과 감탄을 금치 못한다.

사회주의 새 문명이 꽃피우는 인민의 그 밝고밝은 모습들을 대할수록 더욱 가슴뜨겁게 되 새겨진다.

위대한 장군님을 뜻하여 잃은 민족의 대국상으로는 나라가 피눈물에 잠겨있던 주제 100(2011)년 12월 어느날 평양시에 자연박물관을 건설할데 대해 가르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것이 못할 화복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일군분모가 전후의 어려운 나날에 인민에게 인정을 동물원건설을 위해 몸소 리전도 잡아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고 머나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서우를 실어오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인민을 위한 일인데 이것저것 따스한 생각이 되였는가고 하시며 비행기가 날아오르도록 뜨거운 열정을 기울여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인자하신 모습을 떠올리는것만 같았다.

정명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도 인민에게 인정을 새 문명, 천지개벽된 사회를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뜻과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관철, 지척자간의 투쟁정신을 더욱 북돋아주시었다. 당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인민군인건설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격전을 벌이며 승리의 깃발을 앞장서서 열어나갔고 혁명적군정신을 본받아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건설에 참

가한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창작가, 종업원들이 한 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 총성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이 나날 막대한 자금을 들여 수입해야 한다면 감성유리를 채 당 부분 일군들과 국가과학원, 대안천천리공정장 등의 과학자, 기술자, 종업원들이 우리의 힘과 지력으로 생산하여 맹수사의 정면에 대항으로써 범을 비롯한 맹수들이 금시라도 달려나오는듯 한 판상적외포를 잘 보강하였다.

지난 5월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찾아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연 박물관건설정령을 하나하나 료해하시면서 보여주시듯이 하지 말고 보다 폭넓은 지식을 갈수 있는 교육장소로 되게 꾸려야 학술적으로, 미학적으로 더욱 세련시는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과학성, 실용성, 친절성의 원칙에 따라야 박물관을 더 잘 꾸리는데서 나오는 문제를 하나하나 밝혀주시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문이며 전시관들의 곳곳에 설치된 역정메비존의 크기, 로대에 붙여놓아 볼수여어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들리시면서 자연박물관을 세계적수준의 특색있는 교육거점,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장소로 꾸려 인민에게 인정을 주게 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우며 우리 당의 수령님께서 잘 하도록 하라고 하시고 동물들의 먹이도

장대책도 하나하나 세세히주시던 위대한 사색과 헌신의 순간순간들을 되새길수록 가슴이 더욱 뜨거워진다.

정명 모든 사색과 실천을 인민을 위하여 다 바치시며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인민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온몸을 불태워가시는 위대한 태양의 빛밭을 길이 천재갈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다.

그 위대한 헌신이 안아온 새 문명의 황무대, 황홀하게 펼쳐진 길고길은 지식의 바다. 천지개벽된 동물세계-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을 찾았듯이 행복의 기쁨을 마음껏 리쳐가는 우리 인민이다.

공화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원수들의 책동이 아무리 막막해져도 어찌는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21세기 천민학살의 대적당인 과학기술전당이, 오늘 온 세계적수준의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이 소리치며 일떠선 조국의 자랑한 현실에서 인민은 더욱더 가슴벅차게 안아본다.

영원한 태양의 빛밭아래 이 땅에서 밝아오는 문명강국의 눈부신 래일을.

당의 현명한 영도아래 참다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은 무한대 한 지식의 힘, 창조를 더욱 의욕있게 키워내던 수령님들께서 넘쳐나시던 온 세계가 부러워한 문명강국,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하루빨리 앞 당겨올것이다.

글 쓴사기자 오철봉  
사진 쓴사기자 함광범



### 희한한 동물세계

100여정보의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있는 중앙동물원에 새로 건설된 파충류관, 원숭이관, 맹수관과 개관을 비롯한 여러 동물관들과 외관까지 개진된 수십종의 동물사육에 260여종에 달하는 희귀한 식물종들을 포함한 740여종의 수많은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새로 폈다.

조형화,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원숭이관 실내에는 우리의 인공물이 보여 준다.

해당 동물들이 사는 서식지에 들어선것 같은 동물관들을 한번 보는것으로는 성취감이 사라질것 같지만 놀이공원 같은 곳과 달리, 하지만 이이 다 알라. 얼얼, 스무뎀을 돌아보아도 알수 없는 사냥의 비극과 지해에도 펼쳐졌다는것을. 특색있게 건설된 파충류관의 지하에서는 각이한 생태환경을 요구하는 동물들의 특성에 맞게 열대초원구역, 반사막구역, 열대수림구역 등 온대산림구역에 서로 다른 온습도를 중단 없이 보장하며 30종에

있고있는가 하면 인공바위와 돌산 등을 분주히 오르내리며 제물을 부리던 원숭이 한 비리가 그간 끝에 떨어져 허우적거리다가 새로 만든 배우에 기어올라 사람들을 쳐다보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이 개방로모양으로 독특하게 건설된 개관에 들어서서 길다란 원형복도와 5개의 관람통을 통하여 수많은 개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각이

한 모양과 색깔, 크기를 가진 귀여운 개들이 온갖 새들을 부리고 관람객과 원형복도의 벽면에 게시된 세계 여러 나라 개들에 대한 지식과 상식의 폭을 넓혀주는 그림판과 레일문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찌 그뿐이라. 동물계주장과 성성사, 법사와 코끼리사... 이리시나 사람들의 웃음을 리쳐올렸다. 동물원구내를 달리는 산뜻한 관람차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손을 내흔

들며 환성을 올렸다.

정명 중앙동물원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웃음꽃을 피우는 인민의 문화휴식터, 동물세계의 풍부한 지식을 안겨주는 마중물모르는 샘터였다.

각각이 클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자욱이 숨연히 안겨와 가슴은 뜨겁게 젖어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들을 리쳐올린 지 밝은 모습을 보시였더라면 얼마나 기뻐 하시랴.)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문명강국을 일떠세우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입니다.』

자연박물관 중앙홀에 들어선 우리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태고적의 지구의 모습이면가 이글거리며 흘러내리는 거대한 용암, 기타 판공룡관모형들은 상상으로도 리보곤 하던 공룡의 시대가 눈앞에 펼쳐진듯 한 느낌을 자아냈다.

이곳에서 일하는 치명적공룡은 이렇게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직접적인 달기에 의하여 일떠선 자연박물관은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에 지구의 역사와 생명의 기원, 동식물을 비롯한 생물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보급하는 특색있는 과학적보급기 지입니다.』

자연박물관은 1층은 우주관과 고성광판, 2층은 동물관, 3층은 동물관과 식물관, 4층은 식물관, 임시전시관, 전자열

람실로 되어있었다.

우리는 먼저 우주관으로 들어섰다. 우주의 진화, 태양계의 형성, 태양이 지구에 주는 영향, 시간과 날짜 등 10여개의 대상들에 대한 자료들이 행방도대상을 비롯한 특색있는 장치들로 전시되어있는 우주관은 정말 놀란 하였다.

특히 투명실리비를 리용하여 지구의 형성과정,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의 운동, 밤하늘의 별자리 등을 보여주는 천체관람실, 마치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느낌을 자아내는 대형바닥형시정치는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용암이 끓고있는 지구열모형을 보여주는 반경화 하나를 통해서도 원시상태의 지구에 대한 묘상을 정확히 가질수 있었다.

마치 우주를 탐험한듯 한 흥분을 느끼지 못하며 우리는 고성광판으로 향하였다.

고성광판은 시성초대 및 원생초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의 구획으로 나뉘어져있고 지구의 환경과 생물과의 관계, 첫 다세포생물의 출현, 알코리화식, 인류의 기원 등 90여개의 대상들이 전시공룡과 도란 등으로 전시되어있었다. 생명의 기원으로부터 인류를 현시까지 지구환경변화와 생명의 진화발전과정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볼수 있게

하였다.

분류별로 체계화하여 생동하게 전시한 동식물보존본과 박제동물들 보기도 하고 역정메비존과 손집속식물류터볼 통해서 지구상에 있는 동식물들의 종류와 상태, 분포, 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과학지식을 배워가는 참관자들의 기쁨은 끝이 없었다.

유식장소들과 간단한 청량음료를 마실수 있는 장소까지 이채롭게 꾸려진 자연박물관이어서 참관자들속에서는 찬란의 소리가 쉬임없이 울려나왔다.

그것은 정명 우리 인민을 위하여 펼쳐진 대성산기술에 세계적수준의 자연박물관도 훌륭하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귀마음의 분출이었다.

우리는 그이의 명도따라 나아가며 떠나지않아 사회주의문명강국이 이 땅에서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가슴깊이 되새기며 참관자들과 함께 자연박물관을 나왔다.

글 쓴사기자 오철봉  
사진 쓴사기자 리충성

## 떠나고싶지 않은 곳, 내 나라 사회주의가 세계에서 제일!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찾는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의 발들속에서 끝없는 경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서경성은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돌아보고나니 마치 온 세계를 안은것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좋은 것을 다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새 문명의 세계를 펼쳐 주었다. 나는 그 한방없는 인민사랑을 언제나 가슴이 새기고 학습의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겠다.

병양직선공작 작업반장 리은

희는 너무도 희한하고 특색있게 꾸려진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돌아본 소감을 무슨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의 정이 산이 쌓아진다고 하면서 200일전후에서 만리마속도 창조자가 될 불같은 열의를 피력하였다.

조선4. 26 만화영화촬영소 미술가 주병철도 만리마의 기상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의 승물에 발맞추어 더 높은 창작성으로 문명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줄 의지를 도모하였다.

총련조선대학 학생 조국방문단 성원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일떠선 자연박물관과 중앙

동물원을 돌아보니 감동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을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격정을 퍼지었다.

스웨덴리 스칸센 동물원관관장 요나스 알스트롬은 훌륭히 변모된 중앙동물원을 돌아본 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여러 나라들에 있는 많은 동물관들을 돌아보았는데 중앙동물원의 파충류관은 내가 본중에서 가장 최고이다. ...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개들을 볼수 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김정일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특색있다. ...나는 동물원을 개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황홀경을 목격할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동물원을 훌륭히 개진한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명도를 받는 조건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수 없다.

중앙동물원의 현실은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마련해주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의 정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는 것이다.

글 쓴사기자 오철봉  
사진 쓴사기자 리충성





